

지역기업 20개사 실리콘밸리 진출 지원

광주시 투자건설턴트 간담회
벤처캐피탈 사전 매칭 추진
해의 네트워킹 등 모델 발굴
인공지능 네트워크 구축 나서

광주시가 미래 핵심 먹거리 산업인 인공지능(AI) 육성을 위해 지역기업의 실리콘밸리 진출 사업을 적극 지원한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광주테크노파크에서 실리콘밸리 투자 건설턴트 JC Valley 조태일 대표를 초청해 광주-실리콘밸리 간 인공지능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AI Hub City Gwangju)' 만들기과 관련한 인공지능(AI)산업의 핵심 클러스터인 실리콘밸리와의 해외 네트워크 지원사업을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선 지난해 지역기업의 실리콘밸리 방문 성과를 점검하고, 올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해 10월 지역 기업 8개사와 공동으로 실리콘밸리에서 투자 유치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참여 업체 중 인디제이, 지니소프트 등은 현지 법인 설립 및 투자유치 등을 진행하고 있다. 광주시는 실리콘밸리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위해 올해도 2기, 3기 기업을 선정해

실리콘밸리 방문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올해내 가시적인 사업 성과를 내기 위해 지난 1월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반영한 기업 중심의 해외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에만 상·하반기로 나눠 각각 10개사씩 총 20개사를 선정, 실리콘밸리를 방문하고 투자유치 등에 나설 방침이다. 광주시와 광주테크노파크는 현지 기관과의 수시 협력을 통해 방문 전 현지 벤처캐피탈과의 사전 매칭에 나서는 등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또 해외 투자유치 경험이 많지 않

은 지역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오는 4월부터 해외 네트워킹 전략, 투자설명(IR)피칭 준비 등 해외 투자유치 준비과정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해 인공지능 글로벌 비즈니스 모델 발굴에 적극 나선다. 실리콘밸리 해외 네트워크 구축 사업 참여를 희망 하는 기업은 오는 17일부터 광주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jtp.or.kr)에서 사업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다. 손경중 광주시 인공지능산업국장은 "지난해 실리콘밸리 기업협력 및 벤처마킹을 통해 쌓인 경험을 토대로 광주지역과 실리콘밸리의 비즈니스 환경, 문화적인 차이를 반영해 올해는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북구 산불 방지 다짐 광주시 북구 산불전문 예방진화대원들이 최근 무등산 자락에서 정비를 점검하고 산불 취약지역 집중관리 및 산불 예방에 대한 각오를 다지고 있다.

김대중컨벤션센터 제2전시장 건립 본격화

김대중컨벤션센터 제2전시장은 김대중컨벤션센터 건너편 제1주차장 1만 8900여㎡ 부지에 8000㎡~1만㎡ 규모의 전시장, 회의실, 주차장 등을 갖추게 된다. 김준영 광주시 문화관광체육실장은 "2005년에 문을 연 지역 유일한 전시컨벤션센터인 김대중컨벤션센터 가동률이 현재 71%에 육박하는 등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며 "제2전시장이 건립되면 대규모 전시사업 등을 유치할 수 있어 광주 마이스 산업의 발전을 견인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가족친화경영 함께 만들어요

광주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25곳 대상 교육·컨설팅 지원
광주 일가정양립지원본부가 관내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가족친화 직장교육'과 '가족친화경영 컨설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공인노무사, 가족친화경영지도사 등 일가정양립지원본부 가족친화전문인력에 등록된 각 분야 전문가들이 기업을 방문해 맞춤형으로 진행한다. 직장교육은 ▲행복한 일터 만들기 ▲나의일과 삶의 균형찾기 ▲기업 생산성 UP!, 직원 만족도 UP! 등 3개 분야로 나눠 운영되며, 기업 특성에 맞춰 주제를 선정하고 알기 쉬운 사례 중심으로 진행한다. 또 지난해까지는 기업-기관 직원만을 대상으로 실시했지만, 올해부터는 대표 및 중간관리자까지 확대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오리탕 거리 한입 나들이

광주역 활력 프로그램
12~14일 3회 투어 운영

광주시와 광주역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가 공동으로 '오리탕 거리 한입 나들이 투어'를 시범 운영한다. '오리탕 거리 한입 나들이 투어'는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LH 도시재생 지원기구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지원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광주역 활력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나들이 투어는 광주역 뉴딜사업 도시재생 권역 내에 있는 심비오 협동조합과 함께 오는 12~14일 총 3회에 걸쳐 실시된다. 투어는 광주 송정역~광주역간 셔틀열차를 탑승한 뒤 광주역 인근 오리탕 거리맛집을 탐방하고 광주 폴리 등을 체험하는 내용으로 이뤄진다. 투어 참가비는 1인당 3000원이며, 신청 접수는 7일까지 전화(심비오 협동조합 062-529-2908)로 하면 된다. 강권 광주역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장은 "이번 사업은 광주역 인근 소상공인과의 협업의 시작점"이라며 "앞으로도 광주역 활성화 및 상생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북구 저소득층 어른신 대체식품 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광주지역 복지관을 비롯해 경로당, 다중이용시설의 사탕의 식당 운영이 중단 돼 저소득층 어른신들의 결식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 북구가 도시락과 대체식품으로 지원에 나서고 있다. 7일 오치동의 한 복지관에서 북구청 노인복지과 직원들과 복지관 직원들이 저소득층에 전달할 대체식품을 정리하고 있다.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신고 하세요

광주시 신고센터 개설·운영
매점매석 행위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매점매석 여부 판단은 ▲신고일 기준으로 20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매점매석을 목적으로 보관하는 행위 ▲2019년 신규 사업자는 영업 시작일부터 신고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매점매석을 목적으로 보관하는 행위 ▲영업 2개월 미만 사업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시는 매점매석 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합동 점검하고, 매점매석행위로 판단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박남언 광주시 일자리경제실장은 "현재 매일 마스크 등 매점매석 행위를 집중 점검하는 등 원활한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매점매석 행위가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와 함께 필요한 수량만 구매해 유통이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